

초기 교회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대체인가? 계승인가?

- 베드로전서 2:9-10을 중심으로 -

신현태*

1. 들어가며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신약학계에서 베드로전서의 위상은 바울서신의 그것보다 낮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링(E. Boring)의 2004년 논문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의 친서가 아니며 이 서신의 신학은 바울 신학, 특히 바울의 ‘케노시스 기독교론’(Kenosis Christology)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¹⁾ 그러나, 최근 들어 베드로전서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서신으로 간주되는 동향이 있다.²⁾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2025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E. Boring, “First Peter in Recent Study,” *Word & World* 24/4 (2004), 358-67.

2) 이와 관련된 학자들은 호렐(D. G. Horrell), 코너(R. Korner), 보트너(M. Botner), 마르카(K. Marcar) 등이 있다: D. G. Horrell, *Ethnicity and Inclusion: Religion, Race, and Whiteness in Constructions of Jewish and Christian Identiti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20); R. Korner, *The Origin and Meaning of Ekklesia in the Early Jesus Movement* (Leiden and Boston, Brill, 2017); M. Botner, “The Essence of a Spiritual House: Misunderstanding Metaphor and the Question of Supersessionism in 1 Peter,”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2020), 409-25; K. Marcar, *Divine Regeneration and Ethnic Identity in 1 Peter: Mapping Metaphors of Family, Race, and 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당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세상 속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교회의 소명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그것이다.³⁾ 최근 연구들은 베드로전서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교 전략 형성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조명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정체성 형성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몇몇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탈식민 주의, 세계화된 맥락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⁴⁾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주로 이방인이었으며(벧전 1:18, 21; 2:9-10; 4:3-4), 이 서신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신학적 범주를 전유하여 그들에게 특권적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강조할 때 발생한다.⁵⁾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연구에서 이러한 대체주의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석가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승리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⁶⁾ 이에 따라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입장이 모호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대체주의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3) D. deSilva, "1 Peter: Strategies for Counseling Individuals on the Way to a New Heritage," *Ashland Theological Journal* 32 (2000), 33-52.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채영삼, 『공동서신의 신학』 (경기도 고양시: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7), 212-411; 박영호, "만인제사장론과 선교적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해석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3 (2017), 175-210; 이승호,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정체성," 「선교와 신학」 41 (2017), 437-68.

4) D. G. Horrell, "'Race', 'Nation', 'People': Ethnic Identity-Construction in 1 Peter 2.9," *New Testament Studies* 58 (2011), 123-43.

5) 학자들 사이에서는 베드로전서가 대부분, 아니면 전적으로 소아시아의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강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이 논의의 합의에 대해서는 P. J. Achtemeire,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MN: fortress, 1996)을 참조하라. 유대인과 이방인 청중의 혼합을 강조하는 연구는 J. H. Elliott, *1 Peter: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2000)를 참조하라. 이방 그리스도인 청중을 강조한 연구는 T. B. Williams, *Persecution in 1 Peter: Differentiating and Contextualizing Early Christian Suffering* (Leiden: Brill, 2012)을 참조하라.

6) T. Chester and S. Timmis, *Everyday Church: Gospel Communities on Mission* (Wheaton, Ill: Crossway, 2012).

형성의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은 베드로전서에서 제시된 신약 교회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체가 아니며 계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증을 위해 1) 베드로전서를 대체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2) 베드로전서 2:9-10의 “택하신 족속”(γένος ἐκλεκτόν), “왕같은 제사장”(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 “거룩한 나라”(ἔθνος ἅγιον), “소유된 백성”(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이라는 용어에 대한 언어적, 주석적 검토를 실시하여 이 용어들의 공동체적 (ecclesiological)의미와 유대적인 연관성을 제시하고 3) 민족성과 인종에 관한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와 4) 주석적 결과의 신학적 함의의 분석을 토대로 초기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어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 공동체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인가? 계승인가?

대체(supersessionism/replacement theology)와 계승(successionism)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다. 대체는 기존의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로 완전히 대체되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로 계승은 기존의 신앙적 전통이 보존되면서 그 의미가 발전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체주의적 해석에서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이 폐기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약의 여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방인의 포함과 언약 확장 개념(롬 11:17-24)과 긴장 관계를 형성시킨다.⁷⁾ 반면에

7) M. J. Vlach, “Various Forms of Replacement Theology,” *TMSJ* 20/1 (2009), 57-69.

계승주의적 해석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계승하지만, 이는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즉, 교회가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계승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확장되는 (기존의) 과정 속에 교회가 포함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언을 폐기하지 않고 완성(마 5:17)하셨으며, 바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 개념을 통해(갈 3:7-9)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

베드로전서 2:9-10은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본문이다. 베드로전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적 표현을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견해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 관계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침묵”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약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계승한 것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대체주의적 요소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조명되어 왔다. 특히, 2007년 바우만-마틴(B. Bauman-Martin)은 탈식민주의 비평의 관점을 적용하여 베드로전서의 정체성 형성 전략을 분석하며,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산을 차용하는 이 서신의 방식을 단순히 수사적 전략으로 축소하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차용이 제국주의적 행위에 해당하며, 특정 문화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베드로전서가 경쟁적인 억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로써 보편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담론을 생성한다고 강조한다.⁸⁾

호렐(D. G. Horrell)은 2008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베드로전

8) B. Bauman-Martin, “Speaking Jewish: Postcolonial aliens and strangers in First Peter,” in *Reading First Peter with New Eyes: Methodological Reassessments of the Letter of First Peter*, ed., R. L. Webb and B. Bauman-Martin (London: T&T Clark, 2007), 144-77.

서의 침묵이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양가적 유산(ambivalent legacy)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호렐에 따르면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다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해석이다(계승주의적 해석). 둘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다(대체주의적 해석). 호렐은 대체주의적 해석이 신학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통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침묵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2.2. 베드로전서 2:9-10에 대한 주석적 고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베드로전서 2:9-10의 중요성은 이 구절이 전체 서신서의 전이구역(轉移區域) 역할을 하는 구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된다. 베드로전서 전반부에서 저자는 신자들의 새로운 가족적·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복잡한 은유를 엮어낸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1:3, 23), 신령한 젖을 갈망하는 갓난아기(2:2-3)로 묘사된다. 이어서 신자들은 가정, 성전, 민족 공동체로 제시되며 그들의 택함 받은 이유와 목적 또한 제시된다(2:4-10), 이러한 상징들은 상호 연계되어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복합적인 신학적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또한 2:11에서 호칭 ἁγαπητοί를 지나면서

9) D. G. Horrell, *1 Peter*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8), 102-05.

어조는 정체성 언어에서 윤리적 권고로 전환되고, 전반부에서 전개된 가족과 민족에 대한 복합적 은유는 후반부의 구체적 교훈을 통해 완성된다 (2:11-5:14).¹⁰⁾ 베드로전서 2:9-10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A. 2:9 교회의 정체성: 1. 택하신 족속(γένος ἐκλεκτόν)
 2. 왕같은 제사장(βασιλείον ιεράτευμα)
 3. 거룩한 나라(ἔθνος ἅγιον)
 4. 소유된 백성(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
- B. 2:9 교회의 목적: 그(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ὅπως τὰς ἀρετὰς ἀξαγγείλητε τοῦ)
- C. 2:10 교회의 현재 모습: 하나님의 백성(λαὸς θεοῦ),
 궁핍을 얻은 자(νῦν ἐλεθθέντες)

2.2.1. 택하신 족속(γένος ἐκλεκτόν)

칠십인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γένος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종류의 사물, 식물과 동물(창 1:11-12, 21, 24-25). ② 특정 종족과 혈통(레 20:17-18; 제1마카비 5:2; 제2마카비 5:22). ③ 인종적 의미가 내포된 사람들(창 11:6; 제2마카비 7:28).¹¹⁾ 신약성경에서 γένος는 총 20회 등장하는데, 첫 번째, 후손, 가족과 같은 집합적인 의미(행 17:28)를 나타낼 때, 두 번째, 동, 식물, 언어 등의 종류(고전 12:10, 28)를 가리킬 때, 세 번째, 인종 또는 혈통과 연관되어 유대인들을 나타낼 때이다(행 7:19; 13:26; 고후 11:26; 갈 1:14; 빌 3:5).¹²⁾ 리유(J. M. Lieu)는 γένος는 고통과 박해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이러한 예는 마카비 시대의 유대문학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¹³⁾ 러브(S. L. Love)는 γένος

10) Achtemeier, *1 Peter*, 73-74, 169.

11) D. G. Horrell, *Becoming Christian: Essays on 1 Peter and the Making of Christian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3), 141.

12) F. Büchsel, “γένος,” *TDNT* 1:684-85.

13) J. M. Lieu, *Neither Jew Nor Greek? Constructing Early Christianity* (SNTW;

는 유대문학에서 ‘깊은 혈족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⁴⁾

사젠트(B. Sargent)는 γένος ἐκλεκτόν의 용어 사용을 분석하여 베드로전서 저자가 구약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강조하는 이사야 43:20b-21¹⁵⁾을 인용했음을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용어의 선택을 통해 바벨론 포로기의 선택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개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여긴다. 와츠(J. D. W. Watts)는 이사야 43장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¹⁶⁾

한편 셀렌드(T. Seland)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다민족 공동체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이 혼합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며, 이들이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족속(γένος)을 형성했다고 해석한다.¹⁷⁾ ἐκλεκτόν은 베드로전서 1:1의 ‘흠어진 나그네’와 연결되며, 2:4-6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λίθος ζῶντα)이자 ‘모퉁이돌’(λίθος ἀκρογωνιαίον)로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본문의 γένος는 유대교적 선택 개념을 확장하여,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한 신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수신자들이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선택된 공동

Edinburgh: T&T Clark, 2002), 58.

14) L. L. Sechrest, *A Former Jew: Paul and the Dialectics of Race*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9), 97.

15) 사 43:20b-21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B. Sargent, *Written To Serve: The Use of Scripture in 1 Peter*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5), 119.

16) 존 왓츠, 『WBC 성경주석 이사야 34-66』, 강철성 역 (서울: 솔로몬, 2002), 244.

17) 셀렌드(T. Seland)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다민족 공동체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이 뒤섞인 소아시아지역의 흠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로 규정한다. T. Seland, *Strangers in the Light: Philonic Perspectives on Christian Identity in 1 Peter* (Leiden and Boston: Brill, 2005), 177-78.

체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γένος ἐκλεκτόν이라는 표현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연속성을 계승하며,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⁸⁾

2.2.2. 왕같은 제사장(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

베드로전서 2:9의 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는 출애굽기 19:6에서 차용된 표현으로, 그 해석에 있어 βασιλείον을 명사로 볼 것인지 형용사로 볼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다.

벡전 2:9

ὡμείς δὲ γένος ἐκλεκτόν, 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 ἔθνος ἅγιον,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 ὅπως τὰς ἀρετὰς ἐξαγγέλῃτε τοῦ ἐκ σκότους ὑμᾶς καλέσαντος εἰς τὸ θαυμαστὸν αὐτοῦ φῶς·

출 19:6

ὡμείς δὲ ἐσεσθέ μοι 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 καὶ ἔθνος ἅγιον. ταῦτα τὰ ῥήματα ἐρεῖς τοῖς υἱοῖς Ἰσραὴλ.

명사로 해석할 경우 ‘제사장들의 나라’로 이해되며, 이는 마소라 텍스트의 מְלָכִים כְּהֹנָנִים(제사장들의 나라)와 병행되는 해석이다.¹⁹⁾ 반면, 형용사로 해석할 경우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되며, 이는 베드로전서 2:9의 다른 호칭들(γένος ἐκλεκτόν, ἔθνος ἅγιον,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과 일관된 수사적 표현을 형성한다. 요한계시록 1:6과 5:10에서도 βασιλείον을 명사로 해석한 용례가 발견되며, 이는 문맥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²⁰⁾ 또한, 베드로

18) I. H. Marshall, *1 Peter*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Press, 1991), 74.

19) 엘리엇은 βασιλείον을 명사형으로 사용한 용례들이 그리스 문학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언급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거주하였던 두 지역 “갈라디아(Geogr. 12.5.2)와 갑바도기아(Geogr. 14.2.16,23)”에서도 이러한 언어사용 용례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나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lliott, *1 Peter*, 436.

20) 램프 마이클스, 『WBC 성경주석 베드로전서』, 박문채 역 (서울: 솔로몬, 2006), 274.

전서 2:5에서 *ιεράτευμα ἅγιον*(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2:9와 병행을 이루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제사장적 소명을 강조한다.²¹⁾ 만약 *βασιλείον*을 명사로 해석할 경우,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특정한 계층이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혈통적 계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과 신학적 강조점을 고려할 때, *βασιλείον*을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며, 이는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역할을 계승하여 세상 가운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²²⁾ 이러한 해석은 베드로전서 2:11이후의 윤리적 권면과도 연결되며,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삶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²³⁾

2.2.3. 거룩한 나라(*ἔθνος ἅγιον*)

베드로전서 2:9에 사용된 *ἔθνος ἅγιον* 역시 출애굽기 19:6의 반영이며, 이 표현의 해석에서 중요한 논점은 *ἔθνος*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ἔθνος*는 본래 공통된 전통, 관습, 또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호머의 문헌에서도 특정 계급이나 공동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²⁴⁾ *ἔθνος*라는 용어는 주로 이방인 또는 비-유대인²⁵⁾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는데 이는 특히 구약성경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브람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약속 가운데 하나는 그를 ‘큰 민족’(*ἔθνος μέγα*/גִּבּוֹר וְגָדוֹ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창 12:2),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ἔθνος*로 언급되는데(23:11; 33:12[히브리어 *עַם*]; 출

21) J. B. Green, *1 Peter* (Grand Rapids: Eerdmans, 2007), 61.

22) 존 더햄, 『WBC 성경주석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442.

23) 채영삼, 『공동서신의 신학』, 274.

24) Iliad 2.91; 3.32; 7.115; 11.72. J. M. Hall, *Ethnic Identity in Greek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5.

25) K. L. Schmidt, “*ἔθνος*,” *TDNT* II:364-69.

32:10[יִי]), 이는 이 용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본문은 출애굽기 19:6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에서는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의 헬라어 단어 λαός가 아닌 ἔθνος가 사용되었다.²⁶⁾ ἔθνος가 단순히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전통과 관습을 공유하는 종족 집단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족속’ 개념에 가까워, 베드로전서 2:9의 맥락과 일치한다.²⁷⁾ 이러한 용례는 ἔθνος가 단순히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특정한 공동체를 가리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ἔθνος는 비-유대인을 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베드로전서 2:9에서는 독특하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²⁸⁾ 이 점에서 베드로전서 2:9의 ἔθνος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새로운 ἔθνος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ἔθνος ἁγίων을 ‘거룩한 나라’로 번역하기보다는 ‘거룩한 족속’ 또는 ‘거룩한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ἔθνος ἁγίων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옛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혈통적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됨을 드러낸다. 이들은 특정 민족적 동질성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 언어, 삶의 방식으로 결속된 새로운 족속이다.²⁹⁾ 따라서, 베드로전서 2:9의 ἔθνος ἁγίων은 교회의 언약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 E. G. Selwyn,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London and Basingstoke: Macmillan, 1947), 126; J. H. Moulton and G. Milligan, *The Vocabulary of Greek Testament: illustrated from the papyri and other non-literary 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181.

27) R. Feldmeier, *The First Letter of Peter: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141.

28) Schmidt, “ἔθνος,” *TDNT* II:369-72.

29) 채영삼, 『공동서신의 신학』, 277.

2.2.4. 소유된 백성($\lambda\alpha\omicron\varsigma$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

신약성경에서 142회 사용된 $\lambda\alpha\omicron\varsigma$ 는 대부분 군중이나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그러나 몇몇 경우 교회의 구성원들을 의미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lambda\alpha\omicron\varsigma$ 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강조된다. 베드로전서 2:9-10에서도 $\lambda\alpha\omicron\varsigma$ 는 세 번 등장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음을 나타낸다. 스트랠만(H. Strathmann)은 $\lambda\alpha\omicron\varsigma$ 의 의미가 단순히 집합된 사람들을 넘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³⁰⁾ 칠십인역에서 $\lambda\alpha\omicron\varsigma$ 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성에 근거한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5와 신명기 7:6에서 $\lambda\alpha\omicron\varsigma$ 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며, 이 관계는 이스라엘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성립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베드로전서 2:9에서 사용된 $\lambda\alpha\omicron\varsigma$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신약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려는 시도인 듯 하다. 엘리엇(J. H. Elliott)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개념을 상기시키며, 교회가 이제 그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해석한다.³¹⁾

포브스(G. W. Forbes)는 베드로전서 2:10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구절이 호세아 1-2장의 예언을 반영하며, 특히 호세아 2:23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호세아 2:23에서는 “궁핍히 여감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2:10에서 $\lambda\alpha\omicron\varsigma$ θεοῦ(하나님의 백성)의 인용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³²⁾ 림버그(J.

30) H. Strathmann, “ $\lambda\alpha\omicron\varsigma$,” in *TDNT* IV:29-33; Horrell, “Race’, ‘Nation’, ‘People,’” 129.

31) Elliott, *1 Peter*, 164.

Limburg) 또한 이 구절이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³³⁾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호세아 1-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론적 회복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전서 2:10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미래적인 사건으로 묘사되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교회가 이미 그 회복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악트마이어(P. J. Achtemeier)는 이 구절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³⁴⁾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9-10의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은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다. 교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보호를 받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지낸다. 이 구절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2.3. 주석적 관찰이 주는 신학적 함의

베드로전서 2:9-10은 구약 성경의 단어와 이미지를 풍부하게 사용하며, 서신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의 결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³⁵⁾ 본 연구의 관심은 베드로전서 2:9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풍부한 묘사, 특히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적’ 또는 ‘인종적’ 용어들에 있다. 이 구절에서 ‘인종,’ ‘민족,’

32) G. W. Forbes, *1 Peter: Exegetic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Nashville, Tennessee: B&H Publishing Group, 2014), 70; Elliott, *1 Peter*, 441; Achtemeier, *1 Peter*, 167.

33) 제임스 램버그, 『호세아-미가 현대 성서주석』,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42.

34) Achtemeier, *1 Peter*, 167.

35) Elliott, *1 Peter*, 407.

‘백성’으로 널리 번역되는 γένος, ἔθνος, λαός라는 세 가지 주요 민족 정체성 용어가 교회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베드로전서는 민족성을 구별이 아닌 연결을 통해 형성하는 ‘통합적’ 방식의 사고를 보여준다.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유대인’과 ‘그리스인,’ 또는 ‘그리스인’과 ‘야만인’을 하나의 구원받은 민족으로 묶는 보편주의적 관점과 유사하다.³⁶⁾ 특히 2:9에서 선택받은 족속의 소명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ἐξαγγέλλ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³⁷⁾ Χριστιανός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명칭은 외부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에서 비롯되어 점차 내부인이 사용한 자기 지칭으로 바뀐 반면,³⁸⁾ 기독교인들을 γένος(인종)로 묘사하는 개념은 자기 정의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비슷한 언어가 외부인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지만, 이 과정은 Χριστιανός라는 명칭에서 일어난 일과 반대의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묘사하는 방식은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 언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이는 기독교 정체성이 민족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한다.³⁹⁾ 최근 사회과학 연구는 ‘민족성,’ ‘인종,’ 그리고 ‘국가’ 같은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구성물이며, 특정 역사적·지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고대 시대의 민족 정체성 개념과도 잘 맞아떨어지며, 당시 사람들은 혈통을 통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변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체성의 유연성도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⁴⁰⁾ 현대 사회학에서 민족 집단의 정의는 γένος와 유사하게 공동의 기원이나 혈통에

36) D. K. Bull, *Making Christians: Clement of Alexandria and the Rhetoric of Legitim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104-06.

37) Green, *1 Peter*, 62; Elliott, *1 Peter*, 439-40.

38)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Horrell, *Becoming Christian*, 164-210.

39) Horrell, “‘Race,’ ‘Nation,’ ‘People,’” 140.

40) P. Jackson and J. Penrose, “Introduction: Placing ‘Race’ and ‘Nation,’” *Constructions of Race, Place and Nation*, ed., P. Jackson and J. Penrose (London: UC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4), 1-23.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로서의 공동 기원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객관적인 특징보다는 공동의 조상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구성된다.⁴¹⁾ 민족 집단에 대한 현대 사회과학적 정의를 확장하여 제시하고, 초기 기독교(특히 베드로전서에서)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사회학자 스미스(A. Smith)의 인종 그룹에 대한 여섯 가지 정의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동체의 본질을 식별하고 표현하기 위한 고유 명칭; 2. 공동된 조상의 신화, 사실이 아닌 신화, 시간과 장소에서의 공동된 기원을 포함하며 민족에 허구적인 친족 의식을 부여하는 신화; 3. 공유된 역사적 기억, 또는 더 나은 표현으로는 공동된 과거 또는 여러 과거에 대한 기억, 영웅, 사건과 그 기념; 4. 흔히 종교, 관습, 언어를 포함하는, 하나 혹은 여럿의 공동문화 요소들(특정 범주화 할 필요는 없음); 5. (디아스포라 민족과 마찬가지로) 해당 민족이 꼭 물리적으로 점유해야 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조상의 땅과 같은 본향에 대한 연결성; 6. 적어도 민족 구성원 중 일부가 느끼는 연대감⁴²⁾

스미스의 연구는 민족 집단 내의 모든 요소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민족적 또는 인종적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이 시대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강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우리가 ‘인종’이나 ‘민족적 기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이 얼마나 유연하고 본질적으로 사회적 구성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41) J. Stone, “Max Weber on Race, Ethnicity, and Nationalism,” *Race and Ethnicity: Comparative and Theoretical Approaches*, ed., J. Stone and R. Dennis (Oxford: Blackwell, 2003), 28-42.

42) J. Hutchinson and A. D. Smith, “introduction,” *Ethnicity*, ed., J. Hutchinson and A. D.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6-7. 스미스의 인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2-31. 밑줄 표시는 필자의 강조 표현임.

이 광범위한 정의를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의 형성은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베드로전서에서 이러한 과정을 특히 잘 드러낸다.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민족적 또는 인종적 지표를 통해 기독교 정체성을 민족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서신은 신자들의 새로운 출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신적인 조상 개념을 형성하고(1:2-3, 17, 23; 2:2),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신자들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다(3:6). 또한, 베드로전서는 디아스포라와 바벨론 이미지를 사용하여 신자들의 고향을 상징적인 개념으로 나타내며,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지향하는 고향임을 암시한다(1:1; 5:13).⁴³⁾ 그리고 이 서신은 신자들 간의 연대감을 강조하는데, 2:17과 5:9의 형제애 언어는 이탈감과 고립감을 겪고 있는 신자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며, 이들은 ‘거류민과 나그네’(παροῖκοι καὶ παρεπίδημοι, 2:11)라는 용어로 묘사되어,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⁴⁴⁾ 이는 초기 기독교 정체성을 전적으로 민족적 또는 인종적 정체성의 범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연구는 베드로전서가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대교의 구체적인 전통을 계승했으며, 신자들이 종교적·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베드로전서 2:9-10에 대한 주석적 고찰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9-10은 γένος, ἔθνος, λαὸς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또한 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ἐκλεκτόν, 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 ἅγιον,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함께 사용한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전서에서 신약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베드로전서가 언급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스라엘의 성경과 전통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며

43) Horrell, “‘Race’, ‘Nation’, ‘People,’” 139-40.

44) 채영삼, 『공동서신의 신학』, 213-30; Horrell, “‘Race’, ‘Nation’, ‘People,’” 140.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칭호, 특권, 그리고 고유한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체성 형성을 위한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언약의 성취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역사를 이스라엘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이해하며, 그 계시의 연속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신학적 확신을 부여하려 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 전통 속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으며, 부활의 소망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었다. 저자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사야 40장의 ‘새 출애굽 서사’(벧전 1:24-25), ‘호세아서의 언약 갹신 약속’(벧전 2:10),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제시된 ‘이스라엘의 유배로부터의 구원 희망’(벧전 2:22-25)과 연결하여 설명한다.⁴⁵⁾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양’(벧전 1:19)과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선택된 모퉁잇돌’(벧전 2:6-8), 그리고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목자’(벧전 2:25; 5:4)로서 묘사되며, 이는 모두 유대적 신앙 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이 신앙은 장차 도래할 심판과 구원의 날에 완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⁴⁶⁾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벧전 1:13)

45) K. D. Liebengood, “The Problems(s) of Reading 1 Peter after Supersessionism,” *Religions* 14 (2023), 6-7; K. D. Liebengood, *The Eschatology of 1 Peter: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Zechariah 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97-103, 175-99.

46) Ibid., 79-104.

또한,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이 구속의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며, 이사야, 호세아, 에스겔, 그리고 시편 저자들의 희망과 약속을 함께 공유한다.⁴⁷⁾ 이 점에서, 베드로전서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됨’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이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이를 것인지에 대한 이스라엘적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특정한 소망(벧전 3:15)을 중심으로 재정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소망은 이스라엘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전혀 의미를 잃게 된다.⁴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따라서, 베드로전서 저자의 주장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체 신학을 심각하게 문제 삼는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를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전 세계를 위한 구속으로 완성하셨다고 말한다. 또한 이 언약 역사와 관련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저자는 기독교나 하나님 백성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의 특권과 사명을 ‘교회’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대체 신학의 관점에서 읽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본다면, 이는 본문에서 제시된 하나님에 대한 전제와 모순된다. 이 해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에 대한 약속도 신뢰할 수

47) Ibid., 79-104, 156-214.

48) Liebgood, “The Problems(s) of Reading 1 Peter after Supersessionism,” 8.

없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자기 것으로 삼도록 요구한다.⁴⁹⁾

베드로전서에서 독자들이 ‘이스라엘 됨’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독자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부름받으며, 이방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그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2)

베드로전서 2:12을 베드로전서의 내러티브에 맞춰 읽을 때, 저자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방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 문화의 가치와 관습을 거부하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유대적인 삶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삶을 본받아 이스라엘의 희망과 기대를 기반으로 한 유대적인 삶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보존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의 가르침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ἀναστροφή’(행실) 또는 ἀναστρέφω⁵⁰⁾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설명하며, 이는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임을 나타낸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묘사되며, 이전의 삶에서 구속되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본받은 선한 행실⁵¹⁾을

49) Ibid., 6-7.

50) 사용 용례는 다음과 같다: 베드로전서 1:15, 17, 18; 2:12; 3:1, 2.

51) Liebigood, “The Problems(s) of Reading 1 Peter after Supersessionism,” 9-10.

강조하는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²⁾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의 약속과 희망의 성취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이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손님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신학에서는 베드로전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할과 특권을 대신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존의 이방 문화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일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예수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희망이며, 이방인들은 그의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새로운 유산을 받아들이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3. 나가며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결시키지만, 이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베드로전서 2:9-10에서 사용된 표현(γένος ἐκλεκτόν, βασιλείον ἱεράτευμα, ἔθνος ἅγιον,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확대하여 교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베드로전서 2:9-10이 대체주의(supersessionism)보다는 계승주의(successionism)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의 정체성은 단순한 민족적 정체성의 대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속 역사에 대한 참여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출생’(벧전 1:3, 23) 개념은 기독교 공동체를 혈통적 계승이 아니라, 신앙을 통한 새로운 가족으로 묘사한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주로 이방인들이었음을 감안할 때(벧전

베드로전서에서 선했던 행실과 관련된 구절은 다음과 같다: 벧전 2:12, 14 3:6, 16, 4:19.
52) W. J. Jennings, *The Christian Imagination: Theology and the Origins of Ra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250-88.

1:18, 21; 2:9-10), 이 서신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영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이스라엘의 배제를 주장하지 않으며, 유대인 신자들도 동일한 구속 역사에 포함됨을 전제한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은 탈식민주의적 비판에서 지적하는 ‘정체성의 전유’라기보다는, 신학적 의미에서의 ‘정체성의 확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스스로를 단절된 새로운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공동체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신약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종합할 때,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민족적 개념을 포함하되, 그것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해는 신학적으로 신구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보편적 구속 역사 속에서 정의하는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논증은 대체주의적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베드로전서의 신학적 메시지를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대체주의적 해석, 계승적주의적 해석, 벵전 2:9-10, 기독교 정체성, 새로운 인종

<Keywords>

Supersessionism, Successionism, 1 Peter 2:9-10, Christian Identity, New Race

* 접수일 2025년 2월 14일, 수정일 2025년 3월 1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19일

참고문헌

- 램지 마이클스, 『WBC 성경주석 베드로전서』, 박문채 역, 서울: 솔로몬, 2006.
- 박영호, “만민제사장론과 선교적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해석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3 (2017.10), 175-210.
- 이승호,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정체성,” 「선교와 신학」 41 (2017), 437-468.
-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현대 성서주석』,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4.
- 존 더햄, 『WBC 성경주석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0.
- 존 왓츠, 『WBC 성경주석 이사야 34-66』, 강철성 역, 서울: 솔로몬, 2002.
- 채영삼, 『공동서신의 신학』, 경기도 고양시: 도서출판 이레서원, 2017.
- Achtemeire, P. J., *1 Peter: A Commentary on first Peter*, Minneapolis, MN: fortress. 1996.
- Anthony, D. S.,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Bauman-Martin, B., “Speaking Jewish: Postcolonial aliens and strangers in First Peter,” in *Reading First Peter with New Eyes: Methodological Reassessments of the Letter of First Peter*, eds. R. L. Webb and B. Bauman-Martin, London: T&T Clark, 2007, 144-77.
- Boring, E., “First Peter in Recent Study,” *Word&World* 24/4 (2004), 358-67.
- Botner, M., “The Essence of a Spiritual House: Misunderstanding Metaphor and the Question of Supersessionism in 1 Peter,”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2020), 409-25.
- Büchsel, F., “γένο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I*, eds. Kittel, G., Friedrich, G.,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Bull, D. K., *Making Christians: Clement of Alexandria and the Rhetoric of Legitim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Chester, T., Timmis, S., *Everyday Church: Gospel Communities on Mission*,

- Wheaton, Ill: Crossway, 2012.
- deSilva, D., "1 Peter: Strategies for Counseling Individuals on the Way to a New Heritage," *Ashland Theological Journal* 32 (2000), 33-52.
- Elliott, J. H., *1 Peter: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 Feldmeier, R., *The First Letter of Peter: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Waco, Texas: Baylor University Press, 2008.
- Forbes, G. W., *1 Peter: Exegetic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Nashville, Tennessee: B&H Publishing Group, 2014.
- Green, J. B., *1 Peter*, Grand Rapids: Eerdmans, 2007.
- Hall, J. M., *Ethnic Identity in Greek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Horrell, D. G., *Becoming Christian: Essays on 1 Peter and the Making of Christian Identity*, London;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3.
- _____, *Ethnicity and Inclusion: Religion, Race, and Whiteness in Constructions of Jewish and Christian Identiti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20.
- _____, "'Race', 'Nation', 'People': Ethnic Identity-Construction in 1 Peter 2.9," *New Testament Studies* 58 (2011), 123-43.
- Hutchinson, J., A. D. Smith, "Introduction," *Ethnicity*, eds., John H. and Anthony D. 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Jackson, P. & J. Penrose, "Introduction: Placing 'Race' and 'Nation,'" eds. Peter J., Jan P.. *Constructions of Race, Place and Nation*, London; UC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4.
- Jennings, W. J., *The Christian Imagination: Theology and the Origins of Ra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 Korner, R., *The Origin and Meaning of Ekklesia in the Early Jesus Movement*, Leiden; Boston: Brill, 2017.
- Liebengood, K. D., *The Eschatology of 1 Peter: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Zechariah 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Lieu, J. M., *Neither Jew Nor Greek? Constructing Early Christianity*, Edinburgh: T&T Clark, 2002.
- Marcar, K., *Divine Regeneration and Ethnic Identity in 1 Peter: Mapping Metaphors of Family, Race, and 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Marshall, I. H., *1 Peter*, Downers Gr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91.
- Moulton, J. H., G. Milligan, *The Vocabulary of Greeek Testament: illustrated from the papyri and other non-literary sourc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 Sargent, B., *Written To Serve: The Use of Scripture in 1 Peter*,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5.
- Schmidt, K. L., “ἔθνος,”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II, eds. Kittel. G., Friedrich. G.,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Sechrest, L. L., *A Former Jew: Paul and the Dialectics of Race*,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2009.
- Seland, T., *Strangers in the Light: Philonic Perspectives on Christian Identity in 1 Peter*, Leiden; Boston: Brill, 2005.
- Selwyn, E. G., *The First Epistle of St. Peter*, London; Basingstoke: Macmillan, 1947.
- Stone, J., “Max Weber on Race, Ethnicity, and Nationalism,” *Race and Ethnicity: Comparative and Theoretical Approaches*, ed. John S., Rutledge D., Oxford: Blackwell, 2003.
- Strathmann, H., “λαός,”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IV, eds. Kittel. G., Friedrich, G.,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 Williams. T. B., *Persecution in 1 Peter: Differentiating and Contextualizing Early Christian Suffering*, Leiden: Brill, 2012.

<초록>

초기 교회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대체인가? 계승인가?

- 베드로전서 2:9-10을 중심으로 -

신현태

(장로교신학대학교, 조교수)

베드로전서 2:9-10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결하면서도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강조한다.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γένος ἐκλεκτόν, βασίλειον ἱεράτευμα, ἔθνος ἅγιον,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은 이스라엘의 소명을 교회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계승주의적 해석을 지지한다. 신약학적·사회학적 연구를 종합할 때, 베드로전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민족적 개념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서는 교회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 전통을 계승·확장하는 공동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제시한다.

<Abstract>

The Identity of the Early Church: Supersession or Succession of Israel?

- Focusing on 1 Peter 2:9-10 -

Asst. Prof. Hyuntae Shi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 Peter 2:9-10 establishes the identity of the Church in continuity with Israel rather than in replacement. The terms employed in the passage (γένος ἐκλεκτόν, βασίλειον ἱεράτευμα, ἔθνος ἅγιον, λαὸς εἰς περιποίησιν) are best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Israel's vocation to the Church, rather than a mere appropriation of Israel's identity. This reading aligns with a successionist rather than a supersessionist framework, underscoring the Church's role in inheriting and advancing Israel's divine calling rather than supplanting it. Engaging both New Testament scholarship and sociological analysis, this essay shows that 1 Peter presents the Church's identity as transcending ethnic distinctions. Accordingly, the epistle does not depict the Church as a community detached from Israel's tradition but rather as its legitimate heir—constituting a renewed people of God encompassing both Jews and Gentiles.

